

연천종친회 제44차 정기총회



△제44차 연천종친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윤근 회장.

연천종친회(회장 권윤근)는 지난 1월20일 오전 11시, 전국농협내 한우식당에서 족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희량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권윤근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원진, 족친 여러분이 문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준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서 연천종친회 발전에 적극 성원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총무의 경과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회의에 들어가 경기도 장단 추밀공파(정헌공) 18世, 知敦寧府事公(諱 格) 묘소에 문관석을 立石기로 했으며, 또한 연천지역족친 추밀공파(정헌공) 知敦寧府事公(諱 格) 파보를 수단기로 의결하고, 기타 토의 후 회의를 마치고 화기에애한 가운데 종친회 발전 잇기를 기원하며 산회했다. <권희량 총무>

울산종친회 사무실 개소식 및 신년회

지난 1월7일 울산종친회는 울산시 남구 신정3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개소식을 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오영회장 및 임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및 신년회를 겸해서 개최했다. 권오달 총무부장의 진행으로 먼저 사무실 현판식을 한 후 떡절단식이 있었으며 이어 권오영회장은



△권오영회장이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신년인사에서 계사년 한해는 무엇보다 종친회의 번영과 조직확대에 임원진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종친회 발전을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 가지고 하였다. 총무부장의 재무보고(2012년도)로 회의를 마치고 식담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 후 산회했다. <권응목 홍보부장>

마포종친회 신년 월례회

마포종친회(회장 권승구)는 지난 1월24일 오후7시 마포구 신공덕동 우기촌 지정 회식장에서 마포종친회 고문, 부회장 그리고 족친회원 등 다수가 참석한가운데 2013년 신년회, 월례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 진행은 권일부 총무의 사회로 시조태사공 망배로부터 족친 상호간 상견례(서로 간 마주보며 '금년엔 더욱 건강하십시오') 새해인사 후 이어 승구 회장의 인사로서 "지난 해 회원님들의 적극적 후원에 이 자리를 기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계사년(癸巳年)신년 새해를 기해 회원님 가내 두루 평온과 행복을 축원 드려

입니다. 라고 인사한 후 오늘 우리 마포종친회신년회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 대중원에서 범준 홍보부장과 멀리 안양종친회 정섭 회장이 함께 해주어 감사드리며 아울러 회원님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소개 및 인사하였다. 이어서 승구 회장은 지난 해 상정되었던 회칙 신설개정(종친회원)내용을 준비된 유인물을 배부 후 설명하였다. 이어 폐회 후 신년회 2부 행사로 석식을 결정한 만찬으로 족친 상호간 당회 발전을 위해 다짐하는 등 덕담과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신년 월례회를 모두 마쳤다. <권범준 본원기자>



△2013. 1. 24 권승구 마포종친회장이 신년월례회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포럼 '오늘' 권오을 공동대표

김종민 전 위원장 초청 특강



△2013. 1. 24 권오을 포럼 오늘 공동대표는 제16차 목요공부방에서 김종민 전 위원장을 초청 특강했다.

지난 1월 24일(목) 오후2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35-1 현대빌딩14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포럼 '오늘' 권오을 공동대표는 포럼 구성멤버인 자문위원, 연구, 운영위원 등 그리고 일반회원 및 초청자 포함 총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6차 특강을 김종민 전 위원장을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은 최근 김위원장이 새누리당 대선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이끌면서 '경제 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라는 점 때문에 오늘 최초 계획한 예상인원보다 100여명

이 초과한 가운데 주요연론 취재진을 포함 열띤 강연으로 각계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는 이날 "경제민주화 과제와 그 실천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경제 민주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을 발휘하고 안정도 유지하도록 적합한 틀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본질적 취치이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치권이 다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끝났어도 '경제민주화'란 말은 사라질 수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정치세력이 경제세력을 압도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거의 비등

한 상황이 되고 나중에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한다며 정치가 경제세력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면 나라가 정상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포럼오늘은 행복한 내일을 위해 치열한 오늘을 준비하는 이념적 가치로 권오을 대표(15. 16. 17대 국회의원, 제25대 국회사무총장)는 국회의원 재직 중에도 매주 공부방을 운영해오는 등 본 포럼도 2009년 10. 12일에 포럼 '오늘'이 창립되었고 이제 5년차에 맞이하며 현 116차에 걸쳐 사회전반에 걸친 주요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과 교류를 지속해 오면서 보다 생산성 있고 실질적인 만남을 지속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공감대를 가진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을 모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들을 오

늘의 우리에게 맞는 해법으로 실천하며 보다 큰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늘 대표는 우리 권문(權門)에서도 각종문사 행사에서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성 등 주위로 부터 근면·소탈·서민적 정치경향이 국회정가 선. 후보로부터 '적'의 없는 정치인이라 정평(定評)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평소 공부하는 면모가 글로벌시대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정치인으로 장래 많은 기대가 되는 족친이다. 차후 권문(權門) 내에서도 관심있는 지방생을 위해 아래 공부방을 참조하면서 116차 포럼을 성황리에 마치고 제 117차는 2월26일(화)17:00-18:30분간 '동반 성장과 경제민주화' 주제로 정운찬전국무총리를 초청 강연 및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권범준 본원기자>

울산동구종친회 제5차 정기총회

울산동구종친회(회장 권혁성)는 지난 1월24일 오후7시, 울산 '정자회집'에서 족친 3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원기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연혁 및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권혁성회장은 인사말에서 동구종친회가 이날이 발전이 되어가고 족친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더

욱더 발전하는 종친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권문헌고문에게 공로패 수여, 권응목 총무의 결산보고, 권영식감사의 감사보고 후 회칙개정이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석식 만찬에 들어가 권혁성회장의 건배제의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폐회했다. <권응목 홍보부장>



△울산동구종친회 권혁성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포럼 '오늘' 목요공부방 안내

1. 참여일정, 진행소개
 - 일시: 매월 넷째주 목요일
 - 장소: 포럼 '오늘' 사무실
 - 진행: 주제강연, 질의문답, 토론/분기별 토론회 개최 진행
2. 주요현안 포럼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각종연구 활동
 -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사회 교육활동
- 제도개선 및 입법추진 활동
3. 월별 강사, 주제 홈페이지 주소: www.forumtoday.co.kr
4. 소재지 및 연락처
 - 주소: 마포구 마포동35-1 마포현대빌딩406호
 - 대표: 권오을, 조장욱(현 서강대 교수)
 - 전화(02)784-9076

觀軒權敬雄副總裁

자(字)는 문필(文必) 호(號)는 관현(觀軒) 권경웅(權敬雄 73. 안동. 36世 발장공파) 본원 부총재는 일찍이 송천(宋川)에 세거(世居)하여 온 친전 송씨의 당파의 유학자 봉산(鳳山) 송연식(宋淵植)씨의 처조부이며 개화기에 안동의 큰 선비로서 새로운 지식과 사조를 이해함에 앞장섰고 기울어가는 국운을 붙들고자 민중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생애를 바친 해장(海藏) 송기식(宋基植)씨의 종손서(從孫嫡)이다. 권부총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에 뜻을 두어 프로 월드컵사업을 38여년간 운영하면서 신용과 성실로 명성을 쌓아 사업에 크게 성공했으며, 또한 25세부터 태사묘 벌유사를 시작해 담수회 대구본부이사, 박약회 안동지회 이사, 별장공파친회 회장, 안동향교 수석장, 성균관 부관장 등을 역임하면서 문사, 봉사, 유림활동에 남다른 정열을 쏟았으며 현 성균관유도회 경북안동지부 부회장, 대중원 전례위원장, 태사묘 관리위



觀軒權敬雄 (부총재)

원회감사, 대중원 종사연구위원회위원, (사)전국국북하고 정도(正道)로 나아갈바를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의 의포가 되고 있다. 선대계보(先代系譜)를 보면 종숙인 35世 낙은공(洛隱公. 諱 相八)은 안동사회에 유림이나 조상 일에 진력했으며 태사묘(太師廟)가 6.25때 불타고 다시 중건(重建)할 때 모금성금에 앞장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시 장면부통령에까지 접견을 시도했으며, 또한 청도 낭중공 재사 및 단소설단에 안동에서 수차례 왕대하면서 감독하였으며 더불어 신축대동보(辛丑大同譜) 16권을 수단해 반질을 총괄하기도 했다. 경웅부총재의 취미는 서예, 글씨는 마음의 흔적, 소리없는 음악이며 무성지악(無聲之樂)이다. 서예작품(代表)으로 다수가 있으며, 부인 진천송씨(鎭川宋氏. 송정자씨. 宋柄奎씨)의 長女)는 화가로 작품이 일월오봉도(日月五峰

圖), 금강산도(金剛山圖)6폭병풍, 십장도(十長圖)10폭병풍, 십장생도(十長生圖), 괴석목단도(怪石牧丹圖)4폭 등 다수가 있으며 지고지순(至高至純)의 여성을 대표한다. 술하여 5남매, 장남 권택기(前 국회의원. 현 특목차관) 차남 권택형, 삼남 권택상(회사원), 장녀 권기현(미국 거주), 차녀 권계정(서울시 공무원)을 두고 복되고 알찬 가정을 이루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常祖님 觀軒 權敬雄** 先祖遺風 餘烈明 先德宗님의 유풍이 남은 공적으로 밝고 肅然後裔 感懷生 숙연한 후손이 감회가 나네 綿綿仕宦 收鴻業 면면한 벼슬은 큰 업으로 거두었고 代代文章 振術名 매대대 문장력은 명예를 명쳤네 憂國忠心 盡盡力 나라 근심 충심을 다 했고 濟民先政 纓纓誠 백성 구제에 성심을 다 기울렸네 千秋奉事 何疏忽 천추 봉사에 어찌 소홀히 하리오 子子孫孫 不忘情 자자손손 정성을 잊지 않으리라

지역단신

▲ 영양여고 (재단이사장 권영택)는 올해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등 수도권 상위대학에 8명이 합격했다. 특히 박소연, 김지수, 송경희양은 서울대 수시합격했으며 권지원양은 고려대에 합격했다. 영양여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교육은 학교 안에서라는 슬로건을 걸고 △신입생, 진학자 전(全)학습과정관성 △주요과목 국어, 영어, 수학 등 방

과 후 복습만 구성 △인성담당, 진학담당 등 담임교사 배정 △운동, 음악, 문화 동아리 활동 등, 산 교육특성화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했다. 서울대 합격생인 박소연양은 시골(농촌) 고교생들에 비해 공교육혜택이 적고 기초학력수준이나 대학입시 준비과정에 서로 큰 격차가 난다며 학교에서 고3 대학입시에 필요한 공교육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말했다. 현 영양여고는 오은석교장, 담임교사, 권영택이사장 겸 영양군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교육비전에 힘과 지혜를 모으면서 내일이 발전해 가고 있다. <권혁성 기자>

▲지난 2월19일 오후 6시 안동 부창한정사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우회(陵優會) 제3대 권혁록(權赫錄·현 안동하회마을 문화유산해

설사)회장 취임식이 있었으며 오는 4-6월 사이에 등산을 할 계획이다. <대중원보도부장 권영건>

▲ 동정

▲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6일 금강공주보(湫)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연기금과 같은 장기투자기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행동기금을 활용한 한 가계부채문제 해결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2월21일 권오갑실업촉구연맹(62세)회장이 제10대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로 추대됐다. ▲ 권오갑영관연합회장은 북한이 2월12일 오전 11시57분경 7천만동포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무모한 제3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와 군의 단호한 응징을 촉구했다. ▲ 한국의 국어대 총동문회(회장 권순환)는 28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열고 박철 한국외국어대총장,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에게 '지팡스러운 외대인상'을 수여했다. ▲ 권혁건 동대일어문학과교수(58)가 1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일본학회 창립40주년기념 정기총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회원수는 1,500명이다. ▲5일 평창동계스피셜을 립락에서 권보운(18)은 회전여지비전3 경기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1분23초60의 기록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아시아 별'인 권보아씨(SBS K팝스타 심사위원)가 지난 26-27일, 국내에서 첫 단독 콘서트로 양코트를 포함해 23곡을 혼자서 부르면서 지난 13년간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 보여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辭令

權寧健 34世 副戶長公派 明(命) 大察院報道部長